



+ 송주호 · EBS 정보기술연구소/음악칼럼니스트

재즈에 빅밴드가 있다면 클래식에는 오케스트라가 있다

노래방에서 마이크를 잡으면 놓지 못하는 사람이든 마이크 잡기 두려운 음치든 음악을 들으며 즐기는 것에 차이가 있을까. 하지만, 선호하는 음악은 제각각 천차만별로 다르다. 클래식도 규모와 악기 편성 등에 따라 수많은 장르로 나누어진다.



노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악 장르는 ‘노래’ 일 것이다. TV에 방송하는 음악 프로그램을 보면 대부분 대중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로 채워지고 있지 않은가. 클래식도 노래의 비중이 대단히 크며, 음악의 역사적 원류도 노래에서 찾는다. 노래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피아노 반주에 부르는 독창이다. 이러한 노래를 가곡이라고 한다. 가곡은 영어권에서는 ‘song’, 프랑스에서는 ‘chanson’ 혹은 ‘mélodie’, 독일은 ‘Lied’라고 한다. 가곡은 시를 선율로 낭송하는 데에 그 밑바탕이 있다. 그래서 가사로 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예술로 승화시키는 데에 주안점을 둔다. 이러한 분위기는 가곡이 크게 부흥했던 초기 낭만의 시대상과 관련이 있다.

[가곡 연주]



가장 성공적인 예는 초기 낭만의 슈베르트(Franz Schubert, 1797~1828)이다. 슈베르트는 시를 음악으로 표현하는 데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약 600곡의 가곡을 남겼다. 슈만(Robert Schumann, 1810~1856)도 독일의 대표적인 가곡 작곡가로서, 올 해 탄생 200주년을 맞아 많은 공연이 예정되어있으니 시간을 내어 꼭 참석해보길 바란다.

합창은 규모에 따라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다. 우선 모테트(motet)라는 이름을 들을 수 있는데, 단일한 합창곡에 붙어있는 경우가 많다. 바흐(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의 일곱 개의 모테트나 브루크너(Anton Bruckner, 1824~1896)의 여덟 모테트들이 잘 알려져 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칸타타(cantata)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 같다. 모 커피 브랜드로도 익숙한 칸타타는 합창이나 독창 등 여러 곡의 노래 묶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바흐는 라이프치히에서 교회의 음악감독인 칸토르(Kantor)로 있을 때, 교회 절기에 맞추어 매주 칸타타를 작곡하고 연주해야하는 의무가 있었다. 그래서 바흐에게는 200편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교회 칸타타를 남길 수 있었다.



[헨델 〈메시아〉의 연주]

칸타타의 규모가 커지면 오라토리오(oratorio)라고 부른다. 영국 최고의 오페라 작곡가로 이름을 날리던 헨델(Georg Friedrich Händel, 1685~1759)은 당시 시류의 변화를 외면하자 인기가 곤두박질치고 빛더미에 앓고 말았다. 그는 결국 오페라를 포기하고 오라토리오를 작곡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탄생된 곡이 연

말이 되면 세계 각지에서 연주되는 〈메시아〉이다. 이러한 이름들은 주로 종교곡에 붙여졌지만, 종교와 관계없는 곡이라도 규모에 따라 이러한 타이틀을 붙이곤 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칸타타나 오라토리오의 규모를 가진 미사곡(mass)과 수난곡(passion)은 제목 자체가 종교의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종교적인 곡에 집중됐다.

미사곡은 카톨릭의 라틴어 전례문에 붙여진 곡으로 본래는 미사 집전이라는 목적을 가진 곡이었지만, 바흐의 〈b단조 미사〉부터 콘서트를 위해 작곡되기 시작했다. 수난곡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고난을 주제로 한 곡으로, 예수가 예루살렘 입성 후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십자가 상의 죽음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부활절 전 고난주간에 불려졌다.

수난곡의 이름은 가사가 신약 성경 중 어떤 복음서를 중심으로 쓰였느냐에 따라 이름이 정해진다. 즉,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하면 '마태 수난곡',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하면 '요한 수난곡'이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passion'이라는 제목 때문에 '마태의 열정', '요한의 열정'(심지어 '존의 열정'도 본 적이 있다) 등으로 오역되는 해프닝도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 작곡가 데이빗 랑(David Lang, b.1957)은 〈성냥팔이 소녀 수난곡〉이라는 독특한 곡을 발표하여 '수난곡'이라는 이름이 비종교곡에 쓰이는 선례를 남겼다.

뮤지컬과 같이 주어진 줄거리에 따라 독창과 중창, 합창, 기악곡 등으로 구성되고 무대에서 연기를 하는 오페라(opera)는 가장 접근하기 쉬운 클래식 장르일 것이다. 다른 장르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흥행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래서, 바로크 시대에는 당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리스 로마 신화나 역사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고전과 낭만시대에는 당시 문학의 주요 테마였던 남녀의 연애담이 많다. 이렇게 시대에 따라 주제가 변하는 것은 오페라가 당시의 대중적인 관심과 시대상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르디 〈라 트라비아타〉의 한 장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공연되는 낭만 오페라의 대표적인 작품인 베르디(Giuseppe Verdi, 1813~1901)의 〈라 트라비아타〉도 사교계의 여인과 귀족 청년의 이루어질 수 없는 애듯한 사랑을 그리고 있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작은 오페라'라는 의미의 오페레타(operetta)는 코믹한 내용의 단막극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요한 슈트라우스 2세(Johann Strauss II, 1825~1899)의 〈박쥐〉와 같이 희극적인 내용이지만 길이가 웬만한 오페라와 비슷하더라도 오페레타라고 불렸다.

오페라와 구별하기 위한 음악극(music drama)도 있다. '오페라'는 본래 '작품'이라는 뜻의 'opus'의 복수로서 '작품들'이라는 의미인데, 이 말은 오페라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독창, 중창, 합창, 기악곡 등 여러 작품이 모여 있다는 데서 연유한다. 하지만, 음악극은 여러 곡이 이어져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전체가 하나의 음악으로 이어지며, 노래는 극의 흐름에 따라 중간에 삽입된다. 가곡이 시를 음악으로 읊는 것이라고 한다면, 음악극은 연극의 대사를 음악으로 말하는 것이라고나 할까.

음악극의 효사는 바그너(Richard Wagner, 1813~1883)의 '가극' (Handlung)으로 올라간다. 극이 음악에 종속되는 오페라를 반대하고, 음악이 극에 종속되는 개념으로 창안된 가극은 당시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관현악 반주는 쉽 없이 이어지는 '무한 선율'을 연주하고, 등장인물들은 정해진 때에 등장하여 노래를 부른다.



[바그너 〈니벨룽의 반지〉 중 1부 〈라인의 황금〉의 한 장면]

기악

'신의 시대'인 중세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인본주의가 싹틔우던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까지도 종교의 힘은 여전했다. 이 시기에는 성가 중심의 성악이 음악의 중요한 장르였으며, 기악은 성악의 보조 수단이거나 순수한 기악곡이라 하더라도 성악을 모방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두었다. 이 시대의 연주 스타일로서 작게 시작해서 점점 커졌다가 다시 점점 작아지도록 연주하는 성악 기법인 '메사 디 보체' (mesa di voce: 직역하면 '목소리를 위치시키기')가 기악에서도 흔히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그 단면을 보여준다.

그러나, 바로크 시대부터는 순수 기악곡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우선 귀족들이 기본 교양으로 악기를 익히면서 각 지역의 영주들은 자신의 악단을 소유했다. 바흐도 귀족의 궁정으로 소속을 옮긴 후 칸타타 작곡을 멈추고 기악곡에 몰두했으며, 고전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하이든 (Joseph Haydn, 1732~1809)은 궁중 오케스트리를 지휘하면서 평생을 보냈다.

이 시기부터 '고전' (classic)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우리가 현재 '클래식 음악'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이 바로 이 시기에 확립된 전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이다. 소나타, 협주곡, 교향곡 등이 바로 그 유산이다.

소나타 (sonata)는 소나타 형식을 갖춘 독주 악기를 위한 다악장의 실내악 작품을 칭한다. '소나타 형식' 이란, 성격이 다른 1주제와 2주제를 제시부에서 제시하고, 이 두 주제가 발전부와 재현부를 거치면서 진행되는 형식을 말한다.

기악 소나타는 보통 1악장이 이러한 소나타 형식을 가지며, 2악장은 느린 템포를, 3, 4악장은 빠른 템포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형식은 고전 이후에 자립 잡은 것으로 바로크 시대 이전에는 독주 악기 를 위한 여러 악장을 가진 작품에 소나타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바이올린 소나타의 연주]

이탈리아에서는 ‘느리게–빠르게–느리게–빠르게’의 네 악장을 가진 작품으로 정형화됐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러한 진행을 따르는 편이었다. 하지만, 스카를라티(Domenico Scarlatti, 1685~1757)의 555곡의 건반 소나타처럼 단악장인 경우도 있다. 피아노 소나타는 반주가 필요 없지만, 다른 기악 소나타의 경우 반주는 주로 피아노와 같은 건반 악기가 맡는 경우가 많으며, 반주 없이 악기 홀로 연주되는 경우도 있다.

협주곡(concerto)은 소나타에서 반주가 관현악으로 확대된 것으로 생각하면 쉽다. 하지만, 바로크시대에는 협주곡에 독주악기가 있을 필요는 없었다. 그 이유는 당시 이탈리아에서 정립된 협주곡 양식을 따르기만 하면 협주곡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협주곡 양식이란 ‘리피에노’(ripieno)라고 불리는 주요 성부와 ‘튜티’(tutti)라고 불리는 반주 성부가 교대로 연주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헨델의 협주곡에는 별도의 독주악기가 지정되어있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바흐의 〈이탈리아 협주곡〉은 건반악기 작품임에도 ‘협주곡’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첼로 협주곡의 연주]

반대로 독주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럿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합주 협주곡’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고전 이후 협주곡에는 반드시 한 명 이상의 독주자가 별도로 지정됐으며, 소나타 형식을 바탕으로 ‘빠르게–느리게–빠르게’의 악장으로 구성됐다. 그렇지만, 베르토크(Bela Bartók, 1881~1945)의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과 같이 예외도 항상 있는 법이다.

기악곡의 꽃은 뭐니 뭐니 해도 교향곡(symphony)이 아닐까. 교향곡은 소나타를 전체 관현악을 위해 확대한 것으로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낭만의 작곡가들은 피아노 소나타를 작곡한 후 관현악으로 편곡(이것은 특별히 orchestration이라고 한다)하여 교향곡으로 발표하는 경우도 있었다. 교향곡은 바로크시대에 그리 많이 작곡되는 것은 아니었으며, 심지어 관현악곡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었다. 바흐의 〈인벤판과 신포니아〉는 건반악기 작품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악장을 갖고 있지도 않았다.

하지만, 하이든은 100개가 넘는 교향곡을 통해 소나타 형식을 가진 네 악장의 관현악곡으로 정립시켰다.

그런데,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1770~1827)이 교향곡을 9번까지 쓴 이후 많은 작곡가들이 교향곡 9번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자 후대 작곡가들이 교향곡 9번에 대한 공포를 가지기도 했다. 물론, 이를 넘긴 작곡가도 많이 있다. 핀란드의 작곡가인 세게르스탐(Leif Segerstam, b.1944)은 현재 <교향곡 232번>을 쓰고 있다. 20세기에는 메시앙(Olivier Messiaen, 1908~1992)의 10악장을 가진 <투랑갈릴라 교향곡>이나 베리오(Luciano Berio, 1925~2003)의 <교향곡>과 같이 고전적인 형식에서 벗어나 'symphony'를 '함께 울린다'라는 언어적인 의미에 집중하기도 한다.



[베토벤 <합창 교향곡>의 연주]

이외에도 실내악(chamber music)으로서 인원에 따라 이중주(duet/duo), 삼중주(trio), 사중주(quartet), 오중주(quintet), 육중주(sextet), 칠중주(septet), 팔중주(octet), 구중주(nonet) 등의 이름이 사용된다. 편성이 모두 현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현악'이라는 말이 앞에 붙으며, 목관이면 '목관', 금관이면 '금관'이라는 말이 붙는다.

그런데, 현악에 다른 악기가 끼어있으면 '현악' 대신 그 악기의 이름이 사용된다. 예를 들면, 바이올린과 첼로, 피아노로 구성되면 '피아노 삼중주'가 되며, 클라리넷,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로 구성되면 '클라리넷 사중주'가 된다. 이 경우 클라리넷 네 개가 모여도 '클라리넷 사중주'라고 하기 때문에 이름이 그 구성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바로크시대의 '트리오'는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됐다. 예를 들면, 세 개의 성부를 사용한 오르간 곡도 '트리오'라고 불렸으며, 반주를 당시의 건반악기인 하프시코드와 첼로 등의 여러 악기 그룹이 '통주 저음'(basso continuo)이라는 이름으로 반주를 담당했으므로 네 명 이상이 트리오 연주에 구성될 수도 있다.



[현악 사중주의 연주]